

## 국민건강증진 위한 사업 개발 · 추진에 최선

성 정 응 ·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12

**역** 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거나 전염성 질병이 만연하던 상황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배고픔을 면함으로써 보다 배부르게 먹고 위생적으로 사는 것을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과 함께 보건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건강의 개념도 한차원 높아졌다. 즉 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실현함으로써 양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을 개발 ·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습관의 변화와 의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질병의 양상도 과거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치료보다는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질환의 특성과 함께 출생의 순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도 최근까지의 소극적 보건정책에서 벗어나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국민의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정책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각종 건강증진사업은, 21세기를 앞두고 국민의 양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정책 중의 하나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32년여 동안 정부의 보건정책을 바탕

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모든 사업의 기본 방향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보건 의식 향상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96년 한 해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이룩한 성과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212여만명에 대한 건강검사와 40만 4천여명에 대한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여('96.11월말 현재), 당초의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학생, 농협공제조합원, 의료보험조합원,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건강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집단 검사를 통한 보건의로 혜택 부여에 최선을 다하였다.

지난 해에는 국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의 기생충관리를 위한 한 · 중 공동 기생충 관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 특히 11월 7일 협회 창립 제 32주년 기념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망' 심포지움은 국내 건강증진사업과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관리사업의 현재를 평가하고, 해외의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돌아보았고 또한 11월 14일~15일에 있었던 한 · 중 기생충학 워크숍은 그동안의 중국 기생충관리를 위한 현지 공동 조사사업의 결과와 우리 나라의 성공적 기생충관리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제적 기생충관리를 통한 전세계인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해는, 대전 · 충남지부가 정도관리 우수지부로 선정되는 등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검사의 정도관리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대내외적 공신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뜻깊은 한 해였다. 그 외에도 새해의 신규검사종목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와 자문,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초등학교 대상 금연글짓기 및 중고생 대상 금연만화 제작, 지역주민 보건교육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공개강좌,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 건강검사업, 건강달력·월간 건강소식·건강관리 이렇게 하자 시리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정보 책자 및 유인물 제작·배부 등 조사연구와 보건홍보사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들에게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만족감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친절과 겸손의 자세 아래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찾는 모든 분께 내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했으며, 이와 같은 신념과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997년 새해에도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해의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새해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첫째로 국민보건교육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보건홍보사업이다. 새해에는 지역 방송,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건정보 전달에 주력할 계획이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강스포츠포럼 불링 대회를 협회 주최로 열어 건강생활 실천의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금연·절주를 위한 보건교육·정보전달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둘째로, 새해에는 건강검사 및 기생충검사 사업도 적극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즉 1997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17.2%가 증가된 2백 6만여명에 대한 건강검사(검사대상별)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확대를 비롯해 학생·

노인대상 건강검사 등 연령·계층별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협 공제조합원, 의료보험조합원, 생명보험계약자 등 집단건강검사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새해에는 정부의 협조아래 제 6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기생충관리 방향의 설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새해에는 골다공증검사, 척추측만증 검사 등 신규 검사 종목을 확대·실시를 비롯해 지역 및 주민의 특성에 따라 종합검사종목을 다양화하는 등 현실성 있는 건강검사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정확한 검사 수행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지부가 정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로, 올해도 선진 보건의료 정보 습득과 교환, 국내 건강관리 경험의 전수 등을 위한 국제 교류사업과 학술연구사업 실시에도 주력하여 보건 의료분야에서도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검진사업 개발, 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한 지역 주민(특히 산간·오지주민 등) 순회검진, 사회 소외계층 대상 무료검사 등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고른 보건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의 본격화에 따른 보건의료여건의 변화 및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 새해부터는 전 직원이 ICC, 즉 Innovation(개혁), Change(변화), Creation(창조)의 정신으로 재무장을 하고 건강관리사업의 일선에 나설 것이다.

32년여간을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변함없는 한가지 이념 아래 국내 건강증진사업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온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앞으로도 보건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72**